오시는길 _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8길 52-2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 남부터미널 2번출구 (서초경찰서)에서 메가스터디 빌딩까지 285m 직진 후, 좌회전하여 약 100m 직진, 다시 우회전하여 직진하다가 첫 번째 골목으로 좌회전하여 두 번째 건물.

주변 버스정류장 > 서초11, 461, 641, 3012, 4319

주자창 이용안내 > 인근 유료 주자장 이용.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진영 민영 주차장 010.7486.4352
정효국악문화재단 할인. 종일주차 1만원, 1시간당 3천원

디자인 / 팽성진 OneCreative
영상촬영 / 양동민
무대감독 / 박연지
총감독 / 김호성

○ 지방 각별 시조 문화재 초청에 부쳐

나의 20대와 30대에는 정치가나 경제인들, 또한 국문학자들까지
전통음악을 사랑했음은 물론이요, 평시조(平時調) 한 수 쯤은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요즈음 정치가나 경제인들은 전통문화나 예술에 관심조차 없으니
그들의 사람내음이 늘 아쉬운 바이다.
언젠가 우연히 반려견들이 활동하는 운동장이 없음을 걱정하는 정치가의 기사를 읽고
그런 관심을 전통예술에 관한 기사로 듣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오늘 충청도 내포제(內浦制)의 박선웅 명인, 전라도 완제(完制)의 김영희 명인,
서울 경제(京制)의 변진심 명인을 초대하는 첫 번 무대를 마련하였다.

저렇게 느리고 음역도 단순하며 음악적 기교도 없는 시조가 왜 지방마다 다를까
생각이 듬직하다. 그 속에서 품격을 지키고 스스로의 감정을 승화시켜 인격을 배양함으로
인간의 고매함을 보이고자 함이 옛 선인들의 표상이었다. 곡 안에 상하의 엄존함은
물론 도덕윤리를 절대삼아 질서를 지킨 음악이 이른바 시조창이다.

우리음악의 성악 중에서도 시조창 만치 논리정연을 원칙삼아 작곡된 음악도
찾아보기 힘들다. 전통가곡이 곡상본위(曲上本位)의 성악이라면 시조창은
시상본위(詩上本位)의 성악이여서 옛 선인들은 시절과 장소에 맞추어서
시를 읊고 또한 스스로 자작시도 읊조릴 줄 아는 풍류를 즐긴 것이다.
학자들이 논리를 원칙삼아 수 없이 반문하고 선위의 치열함을 발언하듯,
시조창도 듣는이 와 창자들 간에 원칙과 옳고 그름을 무척 따지고 평한다.
그리하여 오죽하면 시조 명창은 드물다고 했겠는가...

오늘 무대가 시작이 된다.
지방에 묻혀 묵묵히 자기 지역의 예술로 인정받은 분들을 년차별로,
또한 문화재를 지정받지 아니한 명인들도 초청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막연히 옛 선비들은 시조창에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며 자기 학문의
자양분을 삼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 공연에 기대가 크다.
지방에서 오신 출연자 두 분께 감사드리고 영제를 못 모신 아쉬움을 크게 느낀다.

2017년 5월 21일

(재)정효국악문화재단 국악박물관장

김 호 성

○ 프로그램

○ 창자 / 김영희
향제 / 긋거리시조 / 거미야
경제 / 엮음지름 / 창내고자
향제 / 여창지름 / 달밝고

○ 창자 / 변진심
경제 / 반각시조 / 숭하에
경제 / 평시조 / 눅수청산

○ 창자 / 박선웅
향제 / 사설지름 / 학타고
향제 / 남창지름 / 자룡아

○ 창자 / 김영희
향제 / 사설시조 / 팔만대장
향제 / 우조시조 / 나비야

○ 창자 / 박선웅
향제 / 사설시조 / 예로부터
향제 / 평시조 / 한산삼

○ 사회자 / 김호성

○ 출연진

김호성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준보유자
(재) 정효국악문화재단 국악박물관장

박선웅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17호 내포제시조 보유자
내포제시조 보존회 이사장

변진심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 경제시조 보유자
경제시조 보존회 이사장

김영희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4호 완제시조 보유자
완제시조 보존회 이사장

○ 반주

○ 장구 / 홍상진
○ 해금 / 이욱경
○ 피리 / 배승빈
○ 대금 / 고진호